

## 대한민국 트렌드

# 세상의 중심, '나'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이 말들이 널리 쓰여졌다는 것은 공감을 얻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 사회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튀는 개인을 싫어했다. 서열을 중시하던 전통사회의 유산 뿐만 아니라 획일성을 근간으로 하는 군사 문화가 사회 곳곳에 배어있던 시대에는 더욱 그러했고 민주화 이후에도 그 문화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다. '개인'이 등장한 것이다. 부모들은 어린 자녀를 기를 때 이제는 '튀기' 원한다. 자녀의 개성을 마음껏 살려 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자란 이들은 회사에서도 상사의 지시에 순종하거나 '알아서 순종하는' 선배들을 따라가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내 놓는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112호에서는 자기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현대인의 모습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것이 현대인 특히 20-30대 젊은이를 이해하는 단초가 되기 바란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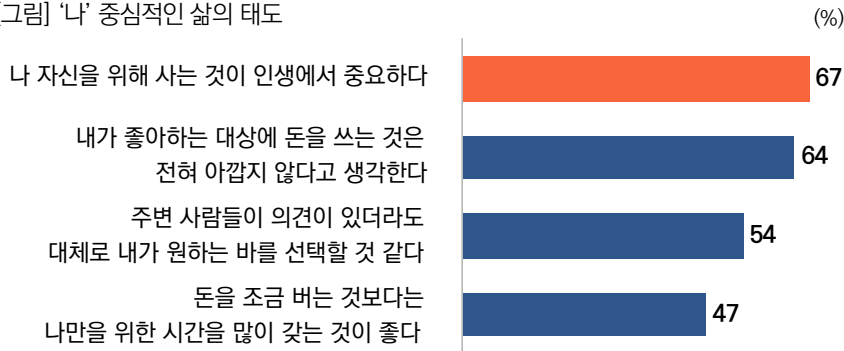
1



##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하다’ 67%

- 1960-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학생들은 ‘나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국민교육헌장을 외워야 했다. 현대인들은 이 말에 코웃음 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67%).
- 그래서 나의 문제는 내가 결정하며(54%),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돈을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64%) 그래서 이들은 평소 돈은 아끼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명품은 과감하게 구입하는 선택적 사치도 서슴지 않는다.

[그림] ‘나’ 중심적인 삶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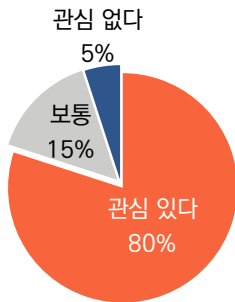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평판 및 관심유구 관련 인식조사’, 2021.07.23(전국 만13-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 4.30-5.4)  
 \*\*5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 ● 나에 대한 관심, ‘사회적 돌보임’ 때문!

- 현대인들은 ‘나’에 대해 얼마나 관심있을까? 평소 ‘나(자신)’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 편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80%)이 ‘관심있다’고 응답했다.
-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스는 호숫물에 비친 자기 외모에 취했다는데, 현대인들은 자신의 무엇에 관심있을까? 나이에 따라 관심사가 다른데 10대는 외모와 학업성적, 30대 이상은 건강과 재력에 관심이 많았다.
- 이 요소들은 해당 연령대에서 자신을 사회적으로 돌보이게 만들어 주는 것들이다. 즉 현대인들은 자신을 사회적으로 돌보이는 데 관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나에 대한 관심도\*\*



[그림] 나(자신)에 대한 관심 영역

	건강	성격	외모	가치관	재력	취업 (직업)	친구 관계	스타일/ 패션
전체	46	32	28	27	23	19	18	16
10대	20	36	49	20	6	15	40	26
20대	32	32	29	30	22	33	17	20
30대	51	29	23	30	31	21	10	12
40대	57	33	20	28	32	16	12	15
50대	72	31	19	30	27	12	15	10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평판 및 관심유구 관련 인식조사’, 2021.07.23(전국 만13-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 4.30-5.4)  
 \*\* 5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관심있다, (별로+전혀) 관심 없다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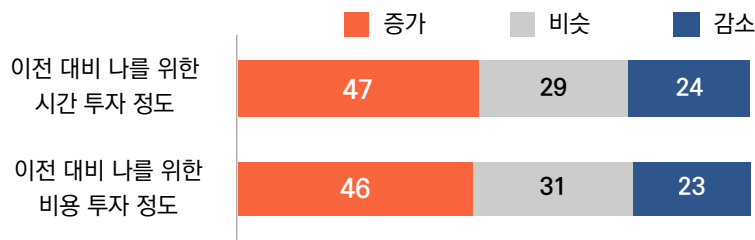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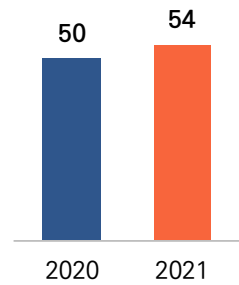
## 국민의 절반 가까이, 이전보다 나를 위해 시간과 비용 투자 늘렸다!

-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까? 돈과 시간이다. 실제로 자신을 위한 시간(47%)과 비용(46%) 투자를 이전보다 늘렸다
- 그리고 '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어났다(50%→54%).

[그림] 이전대비 나를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 증감률 (%)



[그림] 나를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고 싶다 : 동의율\*\* (%)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평판 및 관심욕구 관련 인식조사', 2021.07.23(전국 만13-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 4.30-5.4)  
 \*\*5점 척도로 '훨씬+그런 편' 많아졌다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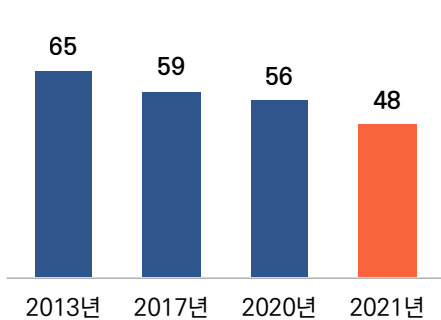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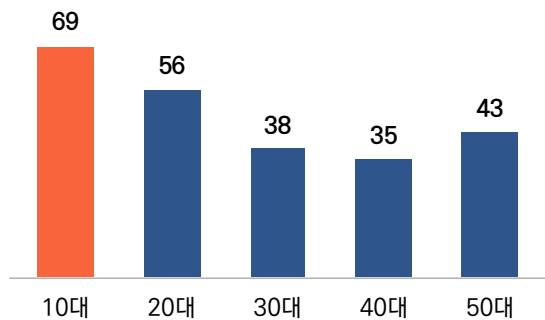
## 반면, 타인에 대한 관심은 점점 낮아진다!

- '나'에 대한 관심은 높는데, 반면에 '타인'에 대한 관심은 해마다 점점 낮아진다.
- 그런데 주목할 것은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타인에 대한 관심은 낮을 것 같은 10대와 20대가 타인에 대한 관심은 가장 많았다.

[그림] '타인'에 대한 관심도(시계열) (%)



[그림] '타인'에 대한 관심도(연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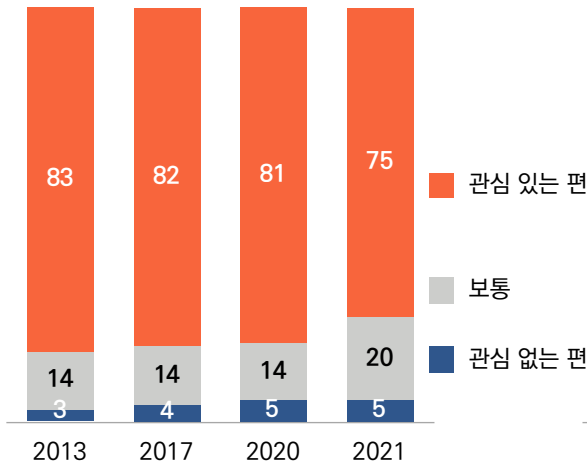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평판 및 관심욕구 관련 인식조사', 2021.07.23(전국 만13-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 4.30-5.4)  
 \*\*5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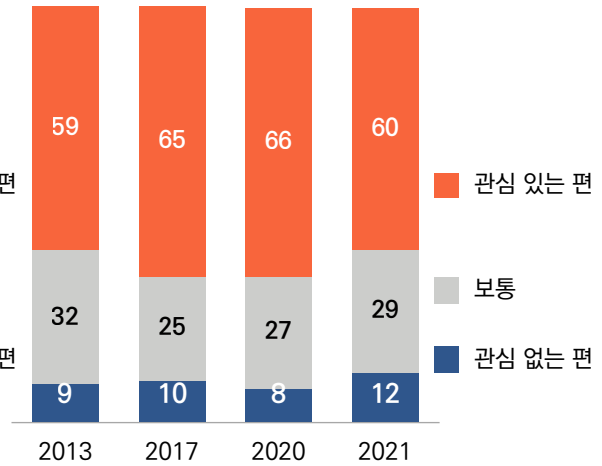
## ● 타인 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대한 관심도도 점점 하락!

- 앞에서 한국인의 타인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음을 보았는데, 이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하락하는 추세이다.

[그림] 가족에 대한 관심도 추이\*\* (%)



[그림] 사회에 대한 관심도 추이\*\* (%)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평판 및 관심육구 관련 인식조사', 2021.07.23(전국 만13~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 4.30~5.4)  
 \*\*5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관심있다, '별로+전혀' 관심 없다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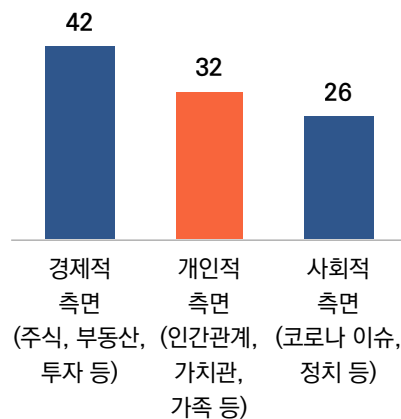
## ● '타인'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은 개인 취향과 관심사 때문

- 타인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드는 것은 첫째, '나홀로 라이프' 취향이 늘어나는 것(69%)과 둘째, 관심사가 타인과의 관계(32%)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몰리기 때문이다(42%).
- 즉 자신 외에는 별로 관심을 가질 계기, 이유가 없으므로 타인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 특히 코로나 사태로 거리 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 및 타인에 대한 관심도가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요즘은 혼자 시간을 보내는게 편하게 느껴진다 (동의율)\*\*



[그림] 현 한국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 (%)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평판 및 관심육구 관련 인식조사', 2021.07.23(전국 만13~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 4.30~5.4)  
 \*\* 5점 척도로 '매우+약간' 그렇다 수치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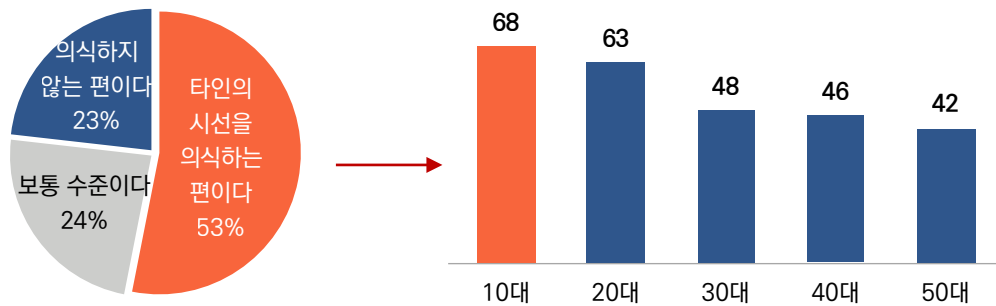


## 그렇다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 ‘나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편이다’ 53%

- 현대인들은 타인에 대해 관심은 낮지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상당히 의식한다(53%). 이것도 결국은 나에게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이다.
-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편이다’라는 ‘독불장군’형 스타일은 23% 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리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10대와 20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심하다.

(%)

[그림] 평소 타인(주변인)의 시선 의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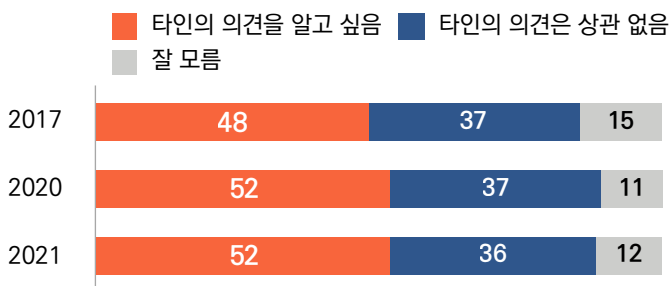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평판 및 관심욕구 관련 인식조사', 2021.07.23(전국 만13-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 4.30~5.4)

\*\* 5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의식한다, '별로+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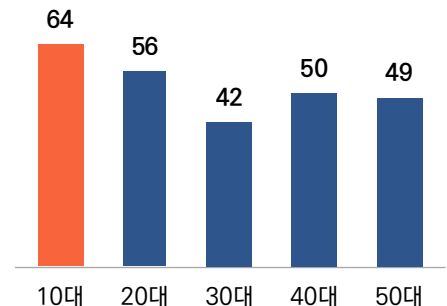
## ● 타인의 ‘나’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52%

-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52%)으로 나타난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신을 위해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인다.
- 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쓸까? 아마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림] ‘나’의 행동 및 태도에 대해 타인의 의견을 알고 싶다 (동의율)\*\* (%)



[그림] ‘나’의 행동 및 태도에 대해 타인의 의견을 알고 싶다(동의율, 연령별, 2021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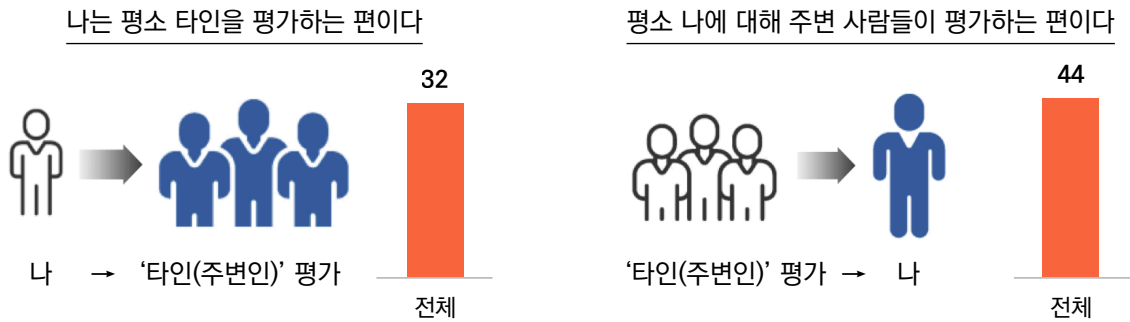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평판 및 관심욕구 관련 인식조사', 2021.07.23(전국 만13-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 4.30~5.4)

\*\* 5점 척도로 '매우+약간, 전혀+약간' 수치임

## ● 실제로 한국인은 자신이 타인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타인이 자신을 평가한다는 인식이 더 강함

- 평소 응답자 본인이 타인을 평가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인데 반해, 평소 타인이 본인을 평가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에 보다 민감해 한다.

[그림] '나와 타인에 대한 평가 태도\*\*' (%)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평판 및 관심육구 관련 인식조사', 2021.07.23(전국 만13-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 4.30-5.4)  
 \*\*5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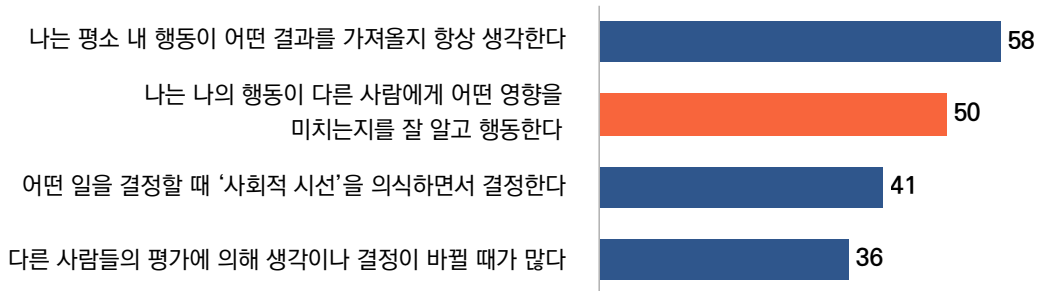
### 5



## 타인의 '나'에 대한 평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50%!

- 다른 사람들의 나에게 대한 평가를 의식하면 자연스럽게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평소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항상 생각하게 되고(58%)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고 행동하게 되며(50%),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면서 결정하게 된다(41%).
-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생각이나 결정이 바뀔 때가 많다는 응답자(36%)도 적지 않았다.

[그림] 타인의 시선에 따른 생각과 행동\*\* (%)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평판 및 관심육구 관련 인식조사', 2021.07.23(전국 만13-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 4.30-5.4)  
 \*\*5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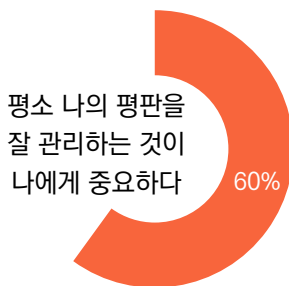
6



##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이유, 1. 인정 욕구

-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므로 자신의 이미지, 평판을 관리하려고 한다(60%).
- 그 첫째 이유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는 것은 남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이 갖는 본능이기 때문이다.
-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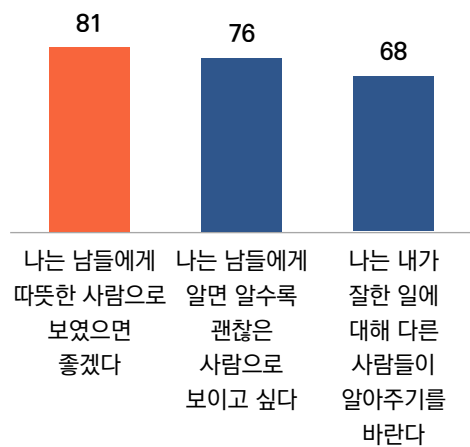
[그림] 평판 관리의 중요성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평판 및 관심욕구 관련 인식조사', 2021.07.23 (전국 만13~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 4.30~5.4)

\*\*5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그림] 인정 욕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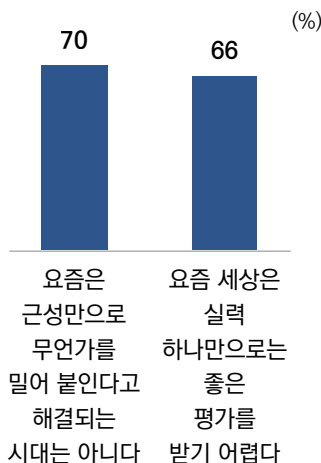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8 인간 관계 및 대인 관계 관련 인식 조사', 2018.7.18(전국 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18.06.18~25)  
\*\*5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 ●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이유 2. 평판

- 흔히 열정과 실력이 있으면 성공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열정만으로는 되지 않으며(70%), 실력만으로도 안 된다(66%)고 생각한다.
- 어떤 면에서는 능력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48%).
- 자신을 포장하는 능력, 즉 평판 관리가 사회적 경쟁력 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63%).

[그림] 사회적 성공 가능성(동의율)\*\*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평판 및 관심욕구 관련 인식조사', 2021.07.23(전국 만13~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 4.30~5.4)

\*\*5점 척도로 '매우+약간' 그렇다 수치임

너무 뛰어난 사람은 남에게 미움 받기 십상이다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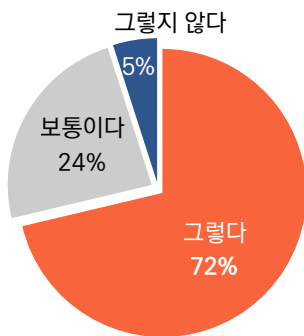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능력은 실제 그 사람의 능력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63%

### ●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이유 3. 한국 문화

- 평판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사회 문화와 깊게 관련이 있다.
- 사람들은 한국사회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은 사회라고 생각한다(72%).
- 혈연, 지연, 학연으로 맺어진 좁은 인맥 사회에서 평판이 나빠지게 되면 한국사회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비록 '나'를 중시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진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는 서구 사회에 비해 여전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에 맞춰 살기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박과 개인의 내면화된 문화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그림]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한국 사회

한국 사회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평판 및 관심욕구 관련 인식조사', 2021.07.23(전국 만13~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 4.30~5.4)  
 \*\*5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 시사점

[넘버즈] 이번 호에서 다루어진 ‘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조사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응답을 한 비율이 응답자의 80%였으며, 응답자의 67%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54%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있더라도 대체로 내가 원하는 바를 선택할 거 같다고 응답했다. 현대인들은 자기 꾸밈, 자기 만족 또는 자기 계발을 위해 자신을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를 과감하게 늘렸다는 응답도 50% 가까이 되었다. 자신에 대한 관심은 늘어났지만 반면에 남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2013년에는 65%였는데 해마다 줄어들어서 2021년에는 48%까지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가를 잘 보여준다.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개인주의의 강화이다. 근대 역사는 개인의 발견 역사라고도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이 집단에 가려져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행동할 때 개인보다 집단을 앞세웠지만, 근대로 넘어와서는 개인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어 개인이 집단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났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역사가 짧고(개인주의는 산업사회에서 발현된다) 장유유서라는 서열 관계를 기본적 사회 관계로 하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개인보다 집단주의가 사회구조의 기저를 이루는 사회이다. ‘튀는 돌이 정 맞는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라는 말이 우리사회의 그런 문화를 대변한다.

개인주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까? 가족에서, 직장에서 나보다는 집단을 앞세우도록 교육받고 요구받으며 살아온 기성 세대에게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비슷한 말로 해석되어 부정적 이미지로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요즘 세대는 다르다. 그들에게는 개인주의가 긍정적이다. 2018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sup>1)</sup> 직장인 10명 중 8명(83%)은 갈수록 사내 개인주의 문화가 증가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사내 개인주의 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29% 밖에 되지 않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72%라고 나타났다. 개인주의가 동료 의식을 약화시킨다든지 이기주의로 변질된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환영받는 것이 대세이다.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상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은 ‘주체성’이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와 허태균 교수는 그의 책 「어쩌다 한국인」에서 한국인의 특성을 6가지로 정리하는 가운데 첫 번째 특성을 ‘주체성’이라고 분석했다. ‘주체성’은 쉽게 표현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허태균 교수는 일본의 이누미야 요시유키 교수의 ‘일본인들에 비해서 한국인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편이고, 자신의 판단을 강하게 주장하며, 특히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내리는 자율성이 강하다’는 말을 빌려 주체성을 설명한다. 허 교수가 보는 한국인은 ‘타인이 정해준 대로 조용히 따라가기 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그 와중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다’

교회는 공동체이다. 오랫동안 같은 울타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누구 집에 솔가락이 몇 개인지 안다’고 할 정도로 서로를 속속들이 안다. 그래서 기쁜 일이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에 같이 슬퍼하며 짐도 나누어 진다. 공동체로서 교회가 이런 장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점도 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지 못하게 하거나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암묵적으로 금지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또한 지금의 현상이다. ‘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을 개인주의의 강화로 해석하든, 주체성의 발현이라고 해석하든 개인을 존중하고 개인을 드러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이제는 교회의 문화도 개인의 생각과 발언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때로는 그 생각이 전통적인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구성원들에게 마음의 불편을 끼치더라도 복음의 울타리 안에서 그것을 감내하며 수용해 주는 문화가 교회에 필요하다. 그래야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교회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1) 디지털조선일보, ‘직장인 81% 사내 ‘개인주의 문화’ 증가, 개인주의 문화에 대한 반응은?’ 2018. 7. 9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18/07/09/2018070912135.html](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18/07/09/2018070912135.html))